

미래의 농작물

이 선 회
정남초등학교 6학년

지난 가을 우리집은 농작물을 수확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땀과 흙더미로 몸이 말라져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온몸이 아프고 쭈셔서 파스로 온몸을 감고 다니셨다.

밭에 있는 고추는 새색시처럼 얼굴이 붉어져 얼른 따가시오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오늘은 고구마를 캐는 날이다. 경운기로 한번 밀고 가면 몸을 숨겼던 고구마가 모습을 내민다.

이렇게 힘들게 얻는 농작물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했다. 벌써 저녁이다. 수확한 고구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해서 인지 오늘따라 밀려오는 피로감 때문에 일찍 잤다.

어디로 한참 가다가 '우리들 생산지' 라는 곳에 들어가보니 로봇들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로봇을 살펴보니 손에서 모종삽으로 바꿔 땅을 파고 씨앗이 알맞게 선정되어 흘러나오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다른 손에서 물을 주었다.

씨앗을 잘 관찰해 보니 바로바로 쑥쑥 커서 고추열매가 맺고, 로봇들이 고추열매를 따고 뿌리를 뽑으니 그 속에서 감자가 있었다. 이중으로 재배하는 셈이다. 정말 편리했다. 씨를 뿌린지 5분도 되지 않아 고추열매를 맺고 뿌리에선 감자가 나오니 하루만에 많은 양의 수확때문에 빨리 팔아 싱싱할 것이다. 이 밭에선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된다.

비닐하우스실로 갔다. 이곳에선 원예농업을 하느라고 로봇들이 무척 바쁜 것 같았다. 한 로봇은 수박을 따다. 따도따도 끝이 없었

다. 지금 우리가 먹는 수박보다 10배는 더 컸다. 딸기·참외도 마찬가지다. 따면 그 자리에서 곧 바로 열매가 맺는다고 한다. 그리고 가을까지 수확한다고 한다. 산으로 올라갔다. 맑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이곳에서도 버섯·인삼·도라지 등을 재배하느라고 무척 바쁜것 같았다. 열심히 일하는 로봇의 모습이 마치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하는 것 같았다. 저 멀리서 여자로봇이 머리에 음식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와 천천히 들판을 거닐때 문득 눈에 띈 건물 하나가 보였다. 막 뛰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보았다. 로봇들이 열심히 무언가 포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로봇을 지시하고 있었다. 수확한 농작물을 예쁘게 포장했다. 큰 상자속에 적게 포장한 것을 넣어 차에 실었다.

여기 저기를 구경하고 문을 나서니 정말 아쉬웠다. 언젠가는 우리집도 여기 '우리들 생산지' 처럼 되겠지...

한참 자고 있는데, 엄마가

“선희야, 일어나 학교가야지. 이러다가 학교늦겠다.”

라고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정답게 들렸다.